

지역 소식통

정읍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착한가격업소' 집중위생소독

정읍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3일간 집중위생소독(살충, 살균, 탈취)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약 1개월 빠른 시기에 소독 활동을 펼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이용객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소로 저렴한 가격과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지역 내 외식업 20개소와 이·미용업 5개소 총 25개소가 있다. 시는 업소 내 주방, 객실, 화장실 등에 위생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를 지원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토록 했다.

더불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위생 상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기별 위생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착한가격업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고창군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중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해 신규 사업자(2월말 기준)의 경우, 수도요금 부과 기준 업종이 일반용(경업종 제외) 및 대중탕 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 요금을 30% 감면할 방침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신청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칠보 동편마을 위생시설 지원

정읍시,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선정

정읍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중앙 공모에서 칠보면 동편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국비 8억을 포함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동편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위생시설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또,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와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

업도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칠보면 동편마을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64%로 매우 높으며,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도 47%로 주거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또한, 마을안길과 기존담장 등이 협소하고 불량해 전반적인 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공모사업은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과의 의견 소통,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내실 있는 준비과정을 통해 전북도의 1차 평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넓은 담장파

촉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인근 무성서원과 더불어 태산선비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태산선비 문화관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주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소의된 취약지역에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추진해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무성서원 주변 마을인 칠보면 원촌마을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 6일 정읍체육공원 진·출입로에 꽃 잔디 등을 심었다고 밝혔다.

정읍체육공원 '봄맞이 꽃단장'

진·출입로 꽃잔디·금계국 등 식재

정읍시민과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읍체육공원 진·출입로에 꽃 잔디밭이 조성된다. 정읍시 시설관리사업소(소장 김병학)는 지난 6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읍체육공원 진·출입로에 꽃 잔디 등을 식재했다.

이날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과 정읍시 체육회장(강광)을 비롯한 회원 등 30여 명은 직접 꽃잔디와 호미를 들고나와 꽃 잔디 2천 포트를 식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체육시설 인근 도로 갖길에도 접시꽃과 금계국 씨앗을 파

종해 깨끗하고 화사한 체육 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을 즈음해 정읍체육공원에서는 화사하게 핀 꽃잔디와 금계국의 향연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장소는 작년 체육센터 진·출입로를 정비한 이후 유류지로 방치되어 잡풀 등이 우거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또, 집중 호우시 흩날림이 내려와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고 토사 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물 환경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군관리계획 재 정비

미래 발전 위한 공간구조 제시 등 수행할 용역사 입찰 진행

고창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행정구역 전반에 대해 군관리계획을 재정비 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관리계획은 군의 개발·정비 및 주거지 및 상가 내수배제 불량지역 제거 및 상가 내수배제 불량지역 등의 우려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정취

합적인 행정계획이다.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의 경우 2030년도 인구 6만명을 목표연도 및 목표 인수로 설정한다.

한편도 첫수도 고창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제시,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수립,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3월 중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수행할 용역사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약 24개월간 기초조사, 교통성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업을 수행한 후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 하게 된다.

고창군 도시계획 담당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고창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행정계획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부군수, 재해위험지구 현장행정 실시

한근호 부안군 부군수는 지난 6일 진서면 곰소갯길단지 일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현장행정을 진행하고 인근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근호 부군수는 이번 현장행정에서 최근 해수면 급상승으로 해안가 주거지 및 상가 내수배제 불량지역 파손돼 인근 상가 붕괴 및 인명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한근호 부군수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사전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신속 추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부안을 선언리 일원에 침수예방사업인 부안을 재해위험

지구 개선사업을 내년 말 완료 목표



한근호 부안군 부군수는 지난 6일 진서면 곰소갯길단지 일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현장행정을 진행했다.

강성선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부임

강성선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최근 부임했다.

신임 강성선 소장은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에서 태어났으며 변산중학교와 부안고등학교, 원광대학교 농과대학 원예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8년 무주군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1991년 고창인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특히 강성선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농가소득 증대와 자기계발 등을 위해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와 동대학원 원예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해 부안군 공무원 중 제1호 박사학위 소지자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강성선 소장은 부안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부안 노을감자

기본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 동진·계화면 3500여동의 감자재배면적 확대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명품 부안쌀 '천년의 숨씨' 기본계획에도 참여해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천년의 숨씨를 부안쌀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으며 부안 참뽕오디 산업 발전을 위해 참뽕연구소 운영, 부안참뽕 주주식품 등록, 이마트 뽕이 바자라쪽 납품 판매, (주)나우코스 및 남부안 연계 미용상품 개발 보급 등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부안군 대표상품 개발을 위해 세계 최초로 누에로 만든 증류주를 개발해 지역 향토기업인 (주)강산에 전수해 부안의 대표 누에술 '그라주'를 개발 보급하는데 기여했다.

강성선 소장은 "앞으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가는데 무엇보다 직원의 화합을 중시해 일하는 조직으로 지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